

CASA LIVING

까사리빙

CSLV

SPECIAL
식물 일상
Green Life

ARCHITECTURE 자연이 다룬 일상의 연도
FAIR 파리는 거대한 아카이브
STAY 미루를 설계한 집

아외토 나간 거실, 아웃도어 리빙

집의 외연을 결정짓는 최전선으로 각성한 아웃도어 가구 전용 혁신인 총 3에 전시된 50여 개 브랜드의 신제품은 고급 주거 및 오프 샵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생동하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물론 조각적인 물결감과 구조미를 표현하고, 친환경 소재로 지속 가능성도 충족시켰다. 별기에 디자인과 제조의 정제성을 내건 분더(Wunder)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성에 주목했다. 10왕 내외를 수놓하는 더 테이블과 원형 테이블 더 서클, 더욱 친밀한 소통을 위해 설계한 2인용 제품 더 듀오까지, 심플한 라인에 산뜻한 컬러가 위트 있다. 스텝엔의 가든 글로리(Garden Glory)는 외부 환경을 실내 공간처럼 큐레이팅하겠다는 사명을 내세웠다. 발코니와 정원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파라솔 더 아이코닉 셰이드(The Iconic Shade) 컬렉션은 피사로로 햇빛 아래 나뭇잎의 모든 순간을 세세히 그려내게 채운다. 이탈리아의 감성적 복원력의 기능성을 절묘하게 융합해온 산업 디자이너 루카 니케토(Luca Nichetto)는 까사나의 삶새를 가꾸어 토레(Tore)를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고안했다. 포슬린 스펀웨어 소재를 적용해 내후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역시 그레이트부터 모스 그린 아이판스 에드, 코발트 블루에 이르는 색상 스펙트럼은 선명한 예술적 변주를 더한다. 박람회장 내 대형 부스를 마련한 칸디아 블라스코 에디션(Gandia Blasco Edition)은 건축가 칸고 구마의 '호스(HOS)' 컬렉션으로 자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비나 안가'와 같은 자연 현상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나의 건축적 숙제이자 관심사 중 하나로, 모호하고 불분명한 현상을 특정 패턴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믿는 다라고 말하는 그는 재료를 폴리에스테르(PET) 섬유와 목재 프레임에 결합해 가구를 넘어선 작은 건축을 완성했다.



© M. J. J.



© M. J. J.



© M. J. J.

1. 88.8%의 공간을 다채로운 균형 잡힌 형태로 갖춘 분더의 더 벤치.
2. 선명한 유채도를 표현한 더 듀오.
3. 가든 글로리의 더 아이코닉 셰이드.
4. 루카 니케토와 까사나 컬렉션 토레의 테이블.
5. 칸고 구마의 스펀웨어 가구 브랜드 칸디아 블라스코 에디션의 '호스' 컬렉션. 비늘이 나타나는 종횡을 추상적인 패턴으로 직조했다.



© M. J. J.



© M. J. J.

신장인 정신

매종&오브제의 수많은 부스 사이에서 집요한 탐구 정신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네 곳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메디테라니아가 디자인(Mediterranea Design)은 생분해성 소재에 3D 프린팅 기법의 적용 제조 공법을 활용, 기술을 제어가 아닌 물질과의 창의적인 대화를 위한 혁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소재 스스로 형태를 드러내는 유기적 구조의 '마테리아(Materiae)' 컬렉션은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되며, 자연을 상징한다. 랩브릭(FabRiCK)을 통한 프랑스 건축가 클라리스 메를레(Clarisse Merle)는 패션 산업의 고정적 문제인 의류 폐기물에 착안, 이를 분쇄 및 압착해 텍스타일 벽돌로 재탄생시켰다. 원재료인 섬유의 색감이 그대로 투명한 재료를 박탈한 흙을 성능과 단열 효과를 지닌 건축 마감재이자 가구로 스펙트럼을 넓히며, 지금까지 LVMH, 로레알, 리바이스, 데카르트 등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 이스탄불에서 온 유니카(Unika)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을 응축한 시그니처 컬러 '보르고나(Borgona)'를 테마로 한 오프노크를 설치장을 준비했다. 빨강과 보라색의 경계에서 숙성된 와인, 풍부함과 별개의 부드러움, 대지의 고요한 애니지를 머금은 이 매혹적인 색조는 라라 보힌크(Lara Bohinc), 예코프 더 반(Jacob de Baan) 등 저명한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만나 자연스레 스미드다. 유니카의 전 제품은 가죽을 삶아 단단한 구조체로 탈바꿈시키는 히프 부이(Cur Bouill), 핸드 스티칭과 같은 고전적 기법에 컴퓨터 제어 가공인 CNC 밀링, 3D 프린팅처럼 첨단 기술을 융합해 동시대적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클레망 루줄로(Clément Rougelet)와 케빈 돌치(Kevin Dolci)가 설립한 디저트 데세르(13Desserts)는 가구와 조명, 오브제를 아우르는 프랑스의 디자인 에디션 브랜드다. 브랜드명은 프랑스 지방의 전통 성탄절에서 유래했으며, 13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를 이루듯 디자인과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 공동체를 구축해왔다. 산업적 공정과 수공예를 결합해 이들의 디자인은 마치 입체설화의 참복판에서도 한란한 자못해 빛났을 때를 이루는 놀라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M. J. J.



© M. J. J.